

# 긴축속 내실찾기로 '한파극복'

## 주요종단 무인년 브리핑

- 조계종** 총무원장등 선거...신도교육의 해
- 태고종** 종단발전기금 모금 전력
- 천태종** 금강불교대 건립사업 진행
- 진각종** 사회복지사업 본격 착수

경제난의 가속화 속에서 올 한해 동안 각종종단은 어떤 일을 펼칠 것인가. 각종단은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 가능한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그간 진행되어 온 사업들도 최대한 규모를 축소한다는 기본 방침을 세웠다. 즉 IMF체제 하에서 줄어드는 각 단위사찰별 수입과 그에 따른 분담금 납부의 저하 경향이 예상되는 만큼 '긴축속의 내실 찾기'를 꾀한다는 것이 각종단의 살림 기조다.

**조계종** 올 한해 상당한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총무원장과 종회의장의 정년 및 의원 선출이 있고, 동화사 불국사 등 9개교구분사 및 주요 직할사찰 주지의 선출하기 때문이다.

올해로 제12대 중앙종회의원 선거는 종단내에서 적잖은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제12대 총회가 차기 총무원장을 선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계종은 경제난과 종단의 지각변동 속에서 종단의 일반 행정과 목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해법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조계종의 구체적인 연간 행정계획은 13일 총무원장 월주스님의 신년기자회견에서 드러날 전망이다.

무엇보다 조계종은 내년을 신도교육의 해로 정하고 신도 교육의 질적 향상과 체계화 수립과 정착에 상당한 중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조계종은 지난해 10월 열린 종단지도체회의 결의에 따른 민족문화와 전통 도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도 전개할 계획이다.

**태고종** 동방대 건립을 위한 '종단 중흥발전기금모금운동'을 올해 중점사업으로 정하고 종력을 쏟을 방침이다. 그러나 IMF하와 등의 영향으로 1백3억으로 책정해놓은 건립예산은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모금 대상자를 당초보다 늘려잡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하지만 작년부터 추진해 온 복지법인

설립과 종단이 담당할 종단원 인권위원회의 활성화 등 긴축속에서도 주력사업들은 그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선암사 성역화 사업과 분규종식을 위한 세미나 개최 등은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당초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며, 매년 봄·가을 정기적으로 개최해온 두차례의 대행법회는 축소하거나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대상에 올려놓고 있다.

**천태종** 오는 20일로 예정된 한중일 국제불교문화교류와 2천년 3월 개교예정인 금강불교대 건립 등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진행중인 불사

는 그대로 진행하되 신규불사는 올해 전면 보류기로 결정했다. 또 종단운영도 책정된 49억원의 예산에서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진각종**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회(가칭)의 본격적 활동을 위한 규모 확장 및 정보·자료축적에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1백10억원의 올해 예산을 예정대로 집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위덕대 군승선발대회 지정문제 해결과 해외 및 국내포교 전략화사업, 종단사무전산화 작업 등 올해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투자는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임연태·한명우 기자

지난해 12월29일 열린 불교TV 제19차 이사회에서 새사장에 선임된 정우스님(구룡사 주지)을 만나 불교TV의 불황 타개책과 앞으로의 경영방침 등을 들었다.



- 불교TV가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타개책은 무엇인지요.

▲경영의 효율성은 경영합리화로 찾아야 합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닌 공격적인 경영을 시도할 것입니다. 살림은 1년단위로 끊어 계획 실현하고 방법이 틀렸다면 과감히 바꾸겠습니다. 불교TV라는 영상매체는 불교를 대표하는 방송이고 사부대중이 동참해서 만들어진 방송입니다. 그동안 태몽스님이 아니었다면 방송 유지조차 어려웠을 것

### 불교TV 새 사장 정우 스님

## "재원확충·경영 합리화 매진"

입니다. 현 상황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적자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지금의 결손 차익은 투자의 차원입니다. 적자라는 말은 옳지 않아요. 창업한 방송사가 정상궤도에 오를 때까지는 투자의 개념이어야 합니다. 본궤도에 오르려면 이익배분이 가능한만큼 불교TV의 미래를 봐주세요. 불교TV의 대표로써 경영구조 재원확충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 재원확충을 위한 별도의 복안이 궁금합니다.

사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 어려움 속에서도 불교TV가 추구하는 방송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불교TV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가장 불교적인 방송이어야 합니다. 케이블 TV라는 매체가 전문방송을 요구하는만큼 우리는 불교전문방송이 돼야죠. 방송은 보는 자, 시청자의 방송이며 시청자를 위한 방송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자들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것이 조건입니다. 각 개인의 가정에 있는 불교인구를 브라운관 앞으로 끌어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제작진의 팀워크, 불교TV 구성원들의 팀워크가 밑거름이 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불자들의 뜻을 모아 운영하는 방송인만큼 가장 불교적이며 인간성 회복에 앞장서는 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불자가 아니라도 우리 방송을 보고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끔 살아있는 방송을 만들 계획입니다. 채널 32번을 틀면 언제든지 보고 싶은 방송이 되게 하겠습니다.

- 방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계획은.

▲모니터 기능과 동시에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을 맡을 방송운영위원회(가칭)를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전문가를 초빙해 불교TV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문제점 지적 및 개선방안 등을 마련할 기구가 될 것입니다.

김지연 기자

## btb BBS 살아남기 '골몰'

### 프로그램 재방·감원등 체질개선 가속

IMF하파로 나라가 온통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불교TV와 불교방송이 재정난 극복을 통한 살아남기 작업에 몰입했다. 우선 두 방송사는 새 사장을 선임하고 인사 경영등 전반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

두 방송사의 살아남기 전략의 기본 골자는 경비절감책, 공통적인 부분은 프로그램 재방송과 감원이다.

불교TV는 협찬을 받고 있는 '신나는 연꽃동산' '차문화 산책' '우리집 우리스님' 등 일부 프로그램과 진각종에 방송시간을 대역한 '밀교강좌', btb뉴스를 제외한 나머지 프로그램은 재방송을 할 계획이다.

불교방송은 현재 방송 중인 '고승열전 편양대사' 편이 끝나면 그동안 방송해온 '고승열전'을 전면 재방송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좀 차이가 나지만 감원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도 유사점이다.

불교TV는 직원감원 작업에 착수. 7일 자료 전직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이다. 또 프로그램 재방영 및 기존 프로그램의 재편집을 통한 프로그램 제작 등으로 매달 2억원씩 소요되던 제작

비를 40~50% 선으로 줄이고 적자폭을 10억원으로 줄일 계획이다. 광고는 전년도 수수료인 12억원 선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고계 광고유치에 힘 쓸 복안이다.

불교방송은 제작비와 보너스 삭감에 들어갔다. 월 1억3천만원가량 배정되었던 제작비를 5천만원으로 60%를 삭감했다. 이에 따라 2월9일자로 프로그램 개편도 준비하고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라는 말처럼 새 사람의 등장으로 새롭게 변모하는 두 방송사의 모습에 모든 사부대중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 그러나 불교TV와 불교방송이 이러한 살림집이기만은 거듭나기에는 역부족일 듯하다.

외형적인 감원 감축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구조적 모순의 과감한 타파, 기술력 확보, 지속적인 재원마련책 강구, 재교육을 통한 인력재활용 방안 등 방송 경영 부분의 전반적인 혁신을 통한 피나는 자구노력만이 두 방송사의 가치 있는 미래를 보장할 것이다. 더불어 불교계의 관심과 지원이 따라야만 두 방송매체는 제 몫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연〉

### 불교방송 새 사장 추천 성낙승 씨

## "자금관리 통제 광고수입 증대"



불교방송 제4대 사장으로 성낙승씨(한국국방방송교류재단 이사장, 63세)가 추천됐다. 6일 열린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서순각)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천된 성씨는 12일 불교방송이사회(이사장 도후스님)의 결의로 선출된다.

공공원형사고와 경영악화 등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불교방송의 새 사장으로 추천된 성씨는 △불교방송 정상화에 따른 관리능력 △두드러진 방송발전 마스터플랜 제시 △신심있는 불자라는 3개항

의 조건에서 적합성이 타후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추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씨가 제시한 불교방송 정상화 방안은 경영관리를 개선하기위해 영업수익을 최대한 확보하고 공정한 조직관리로 업무 효율의 극대화를 기하겠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른 실천방안으로 예산 및 회계관리를 조속적으로 편성하여 시행하고 자금관리를 엄격히 통제하며 광고수입을 증대하겠다는 것.

위영란 기자

**"금모아 나라 살리자"**  
금모으기가 범국민 애국운동으로 불붙듯 번져가고 있다.

아버지가 마교자 금단추를 들어 내는가 하면 돌·백일·우승기념 등 각종 추억이 서려있는 반지와 행운의 열쇠등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조계종도 45개 종교·시민단체와 '경제살리기 범 국민운동'을 결성해 15일부터 금모으기를 한다.

재향군인회 부인들은 구국의 상징으로 행주치마를 입고 금모으기에 나섰다. 권유장군이 행주산성에서 왜구를 물리칠때 아내 자신이 행주치마에 들은

구르는 엄마들이 있다.

분유를 사제기한 사람들은 이틀 앞에서 유구무인일 수 밖에. 사제기로 풀규현상이 생기면 값은 더 오른다. 분유나 라면등은 오래되면 맛이 변한다. 그렇게되면 사제기는 절약이 아니라 과소비다.

내 이익만 챙겨 사제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손해를 봐야한다. 열심히 말하면 사제기는 남의 몫을 가로챈것과 같다. 결국 사제기는 탐욕이다.

'나만 살고 보자'는 망국병이다. 이러한 사제기와 부유층의 흥청망청 과소비가 멈추지 않는 한 \$ 모으기 금모으기는 한강 투석이요, 밑바진독에 물붓기이다. 외세의 침입을 받았을때 한마음으로 팔만대장경을 조성하고 행주치마를 입고 나섰듯이 이제 우리는 합심해야 한다.

류시화씨가 쓴 '하늘호수로 떠난 여행'에 이런 내용이 있다. "당신이 신발 두켤레를 소유하고 있다고 툇다 신고 다닐 순 없지 않소. 그러니 한켤레는 날 주시오." 배낭속에 슬리퍼 한켤레가 든걸 보고 손톱 시커먼 인도인이 한 말이다. 그렇다. 어려울수록 남을 생각하자.

## 행주치마 정신

행주치마 정신은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뜻이다. 나라를 살리자고 남녀노소 없이 장문속의 금을 들고나와 줄을 잇는데 한쪽에선 사제기를 하느라 아우성이다.

지난 연말, 일부 소비자들은 밀가루·설탕·라면 등을 사제기 했다. 그리하여 생필품 풀규현상과 가격인상을 불렀다.

새해들어 커피·분유 등의 가격급등 조짐이 보이자 다시 사제기 바람이 일고 있다. 매장에 분유가 없어 "우리 아기 어떻게 하느냐"며 발을

목어

행주치마 정신은 오늘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뜻이다. 나라를 살리자고 남녀노소 없이 장문속의 금을 들고나와 줄을 잇는데 한쪽에선 사제기를 하느라 아우성이다.

지난 연말, 일부 소비자들은 밀가루·설탕·라면 등을 사제기 했다. 그리하여 생필품 풀규현상과 가격인상을 불렀다.

새해들어 커피·분유 등의 가격급등 조짐이 보이자 다시 사제기 바람이 일고 있다. 매장에 분유가 없어 "우리 아기 어떻게 하느냐"며 발을

# (香妃) 천연방향약용식물을 이용한 여성질병의 치료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 香妃(향비)란?

#### A Queen Consort

향기로운 향(氣)은 아름다운 여성의 건장미를 상징합니다. 태아가 어머니의 태중로 모태에서 영양공급을 받는 것처럼, 향비(香妃)는 인체공학적 모형의 흰 밴드에 천연방향약용식물(天然芳香藥用植物)인 향비를 넣어 여성이 착용할 때, 외세포에 신선한 산소와 자연의 정기인 파이톤 사이드(Phytoncide)를 공급해 줌으로 향비는 모든 여성을 신세계(新世界)로 창출(創出)시킵니다.

### 내분비계 개선효과 큰 (향비)

#### 생리통, 기미효과 탁월

"여성들에게 있어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특히 기미 등이 생기는 것은 쉽게 말해 인체의 신양부족(伸陽不足)으로 인한 내분비계 이상이 그 원인입니다. 즉 내분비계가 문란해지면 일차적으로 여러 종류의 부인과 질병이 발생합니다. 곧이어 기(氣)가 막히고 혈(血)이 뭉치게 되면서 혈액순환이 잘 안되게 돼 점차적으로는 얼굴 부위에 미세혈관의 순환장애가 오고 그것이오래되면 기미가 생기게 됩니다. 미용허리띠 향비는 바로 인체 내의 이러한 부전상태를 차단합니다."

#### ● 과학적으로 알아보는 향의 효능 ●

20세기초 프랑스의 비교 병리학자 R. U. 갈드판세에 의하여 방향성분이 들어 있는 생약과 각종 향신료를 직접 치료에 응용하는 영역을 개발하였다. 이의 결과는 매우 훌륭한 것이어서 향기는 정신을 안정시키고, 집중시키며, 수면이나 각종 스트레스를 풀어주며 통증을 완화시킨다는 결과가 나왔다.



■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2)755-9821, (080)200-4545

###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O)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인기가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
  9. 생리대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0.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썩는다. ( )
  11.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2.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가는 것 같다. ( )
  13.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4.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것 같다. ( )
  15. 목이 뻣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6. 변비가 있다. ( )
  17. 당뇨와 감상선으로 고통을 받는다. ( )
- 3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두통, 관절염, 방광염(오줌소태) 좋아짐

인천시 북구 산곡동

저는 58세의 주부로서 갱년기 장애로 인하여 건강상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일과 후에 심한 피로와 두통 또는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과 오줌소태 등의 증상이 있었습니다. 종하는 건강식품 또는 병원에서 권하는 물리치료를 해보았으나 일시적인 효과일 뿐 통증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향 요법을 써보라는 소개로 "향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문도 있었지만 주위의 권유로 인하여 향비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두통과 피로를 느끼지 못하니 향비착용후에는 관절염으로 인한 다리의 통증이 없어졌고 제가 항상 고민하던 방광염이 좋아졌습니다. 향비의 놀라운 효과에 지금은 나와 가족과 이웃에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시는 "향비"가족 여러분께도 감사사를 드리는 바입니다.